

제3회 세계 물 포럼 참가보고

Report on the 3rd World Water Forum (WWF3)

최 선 화*

Choi, Sun-Hwa

1. 머리말

2003년 세계 물의 해를 맞아 일본 교토, 오사카, 시가에서 2003년 3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에 걸쳐 「제3회 세계 물 포럼」이 개최되었다. 「세계 물 포럼」은 정부, 전문가, NGO, 일반시민 등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21세기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고, 그 중요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세계 물 위원회(WWC: World Water Council)」에 의해 제창된 회의이다. 세계 물 위원회(WWC)는 물 관련 전문가, 학계 및 국제기구 등이 주축이 되어 물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1996년도에 설립된 국제 민간기구이다.

제1회 세계 물 포럼은 1997년 모로코의 마라케시 도시에서 개최되었으며, 63개국에서 약 500명이 참가하였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위생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는 「마라케시 선언」이 채택되었다.

제2회 세계 물 포럼은 200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156개국에서 약 5,700명이 참가한 가운데 97개 지역별, 분야별 분과위원회가 열렸으며 장래를 대비한 세계인들이 취해야 할 행동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세계 물 비전」이 발표되었다. 또한 130개국 114명의 물 관련 장관이 참가한 「각료급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21C에 있어서의 물 안전보장」을 목표

로 한 「헤이그 선언」이 채택되었다.

제3회 세계 물 포럼은 120개국 약 8천여명의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별, 주제별 세션, 물관련 각료회의, 농업용수관련 각료회의 등 38개 의제, 350개 분과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세계 물 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일본 교토, 시가, 오사카에서 동시에 개최하여 세계 물 문제 개선을 위한 지역과 분야를 초월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대화의 장이 되었다.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에서는 허유만 회장을 비롯하여 총 5명이 참가하여 기술분과 「농업, 식량 및 물(Agriculture, Food and Water)」 세션에서 주요 활동을 하였으며, 그 밖의 정부대표단 및 대학교수 등 각계에서도 3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2. 주요 활동내용

가. 식량과 농업을 위한 물 각료회의

1) 고관급 회의(SOM on WFA)

고관급 회담(SOM : Senior Official Meeting)은 농업용수의 다원적 기능과 효율적 이용, 환경과의 조화 등에 관한 기본 인식과 행동을 논의하고, 물 각료회의에서 채택될 권고문을 논의하기 위하여 한국, 일본, 미국 등 35개국과 9개 국제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18일 교토 국립국제회관(KICH)에서 개최되었다. 각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csh@karico.co.kr)

표 1. 세계 물 포럼 개최내용

구 분	개최지	개최연월	회의 내용 및 성과
제1차	모로코 마라케시	1997.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3개국 500여명 참가 • 「마라케시 선언」 채택 • 「21C 있어서 세계의 물과 환경에 관한 비전 : 세계 물 비전」을 작성하기로 결정
제2차	네덜란드 헤이그	2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6개국 5,700여명 참가 • 87개의 지역별, 분야별 분과위 개최 • 「세계 물 비전」 발표 : 세계의 물 현황과 25년 후의 물 전망 제시 • 「행동의 틀(Framework for Action)」 제시 • 각료급 국제회의의 개최 : 130개국 114명의 물 관련 장관 참석 • 「헤이그 선언」 채택 : 21C에 있어서의 물 안전보장을 목표로 함 • 세계 물 박람회 개최 : 32,500여명 방문
제3차	일본 교토, 시가 오사카	200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과 농업을 위한 물 각료회의」 및 농업장관 회의 개최 ; 37개국, 11개 국제기구 참가 • 주제별, 지역별, 특별주제 세션, CEO, 패널미팅 등 다양한 회의 개최 • 가상 물 포럼, Water Voice 등 진행 • 세계 물 박람회 개최 : 40,000여명 참가 • 지역 및 분야를 초월한 대화의 장으로, 물 원조 기관, 유엔기구, NGO, 공공단체, 민간 기업 등의 상호 이해와 물 문제 개선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

국가와 국제기구 대표들은 16개 각료회의의 권고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각료회의의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국 대표로는 농림부 개발정책과 권상필 과장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농업용수관련 부분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 조진훈·김영화 회원은 정부대표 자문역으로 참석하여 활동하였다. 고관급 회담의 주요 내용은 농업용수의 다양한 기능 중 관광, 오락 및 어업분야 기능 추가와 빈곤경감을 위한 수자원개발의 필요성 및 재정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익자에 의한 물 사용료 부과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각 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합의하였다.

2) 농업용수 각료회의(MM on WFA)

3월 21일 일본 시가현 오즈에서 아시아 몬순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총 37개국과 세계식량기구(FAO),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11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여 각국의 물 사정과 관

개용수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 등을 발표하고, "식량과 농업을 위한 물"에 대한 각료회의 권고문을 채택하였다. 농업용수 각료회의(MM : Ministerial Meeting)는 일본에서 제안한 농업용수와 담당각료 특별회의로서, 세계 물 이용의 70 %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용수와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하여 일본 농림성과 FAO가 공동 주관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벼농사 지역의 농업용수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물 각료 회의(MC : Ministerial Conference)에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남아공, 모로코, 이집트 등 20개국에서는 장관이 참석하였고, 우리 나라에서는 농림부 농촌개발국 정학수 국장, 국제농업국 배종하 국장 등 5명이 참석하였으며, 배종하 국장이 농림부 장관을 대신하여 기조연설을 하였다. 기조연설문에서는 북한의 홍수로 농업인프라 붕괴로 인한 어려운 식량사정에 대한 설명과 인도적 차원의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수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



사진 1. 고관급 회담(SOM) 전경

과 이용을 강조하고 있는 "각료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표명과 이의 실천을 위해 각국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주요 국가의 발표내용을 보면 네덜란드는 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유역단위의 물 종합관리의 필요성 및 관련 국가간의 정보제공 등 협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터키는 도시화, 공업화로 인한 물 수요량의 증가로 인하여 수자원의 개발을 중요한 정책으로 설정, 물 부족 해결을 위하여 댐 개발의 중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한편 일본은 농업수리시설 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용수의 다기능으로 농업의 지속적인 개발에 대한 공헌과 참가형 물 관리 조직인 토지개발구의 자주적 조직개혁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각료회의는 21세기의 물 분쟁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식량 안전보장, 빈곤저감을 위한 관계국의 파트너십 구축 등의 구체적인 행동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권고문(Recommendation)은 크게 세가지 과제에 대한 3개항(식량안보와 빈곤의 경감, 지속가능한 물 사용, 관리주체간의 협력), 기본적 고려사항 6개항, 구체적 실천계획 7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용수 개발 및 관리의 필요성

- 20C 후반의 지속적인 농업용수 개발이 기아문제에 크게 기여하였음
- 농업용수는 사회적, 문화적 및 환경보존

등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적 약자층의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데 기여하였음

- 세계 인구의 증가에 따른 식량증산 및 빈곤의 경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 및 투자가 필요함
- 둘째, 농업용수의 효율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
- 기존 농업용수시설의 현대화 및 새로운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와 투자비용의 회수 및 적절한 제도 개선을 통한 물의 생산성 향상
- 비농업 분야 및 수자원 빈곤층에 대한 농업용수의 공평한 분배를 통한 농업용수의 영향력 강화
- 농업용수의 재이용 및 수질보전 등을 통하여 생산적인 생태계 유지 등 환경보전에 기여
- 품종개량, 강우의 효율적 집수 및 지하수 개발 등 물 부족 지역에서의 한정된 수자원의 개발 방안 모색
- 선진국과 저개발국가들 사이의 국제적 협력을 통한 저개발국가의 농업용수 개발능력 향상 도모

나. 「농업, 식량과 물」 세션 참가

3월 19일과 20일 양일간 교토 국제회관에서 "Water Use for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in Asia Monsoon Regions(아시아 몬순 지역에서의 농업과 농촌사회를 위한 물 사용)"이라는 주제로 『농업, 식량과 물』 세션이 개최되었다. 이 주제는 아시아 몬순지역에서의 관개 용수가 공익적 다기능, 물의 대순환, 지속가능한 물 이용 등의 특성 및 환경과의 공생관계에 놓여 있으나 과거 국제적인 물 토론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내용이다.

제1세션의 주제는 "Historical Perspective on Water Communities in Asia Monsoon

표 2. 농업용수 각료회의 참가국

지역	국가 및 기구명	비고
아시아 (22개국)	일본,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 (11개국)	장관급 참석
	대한민국, 중국, 요르단, 시리아, 터키, 우즈베키스탄, 태일랜드, 미얀마, 말레이시아, 이란, 필리핀 (11개국)	차관급 이하
아프리카 (8개국)	모로코,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이집트, 수단, 부르키나파소, 나이지리아 (차관 참석)	장관급 참석
아메리카 (4개국)	콜롬비아, 볼리비아	장관급 참석
	미국, 칠레	차관급 이하
유럽 (3개국)	네덜란드, 폴란드, 그리스	차관급 이하
국제기구 (11개 기구)	세계식량농업기구 (FAO), 아시아개발은행 (ADB), 국제농업연구그룹 (CGIAR), 국제건조지농업연구센터 (ICARDA), 국제관개경수위원회 (ICID), 국제농업자연맹 (IFAP), 세계물위원회 (WWC), 국제물관리연구소 (IWMI), 세계은행 (WB), 메콩위원회 (MRC), 국제환경계획 (UNEP)	대표단 참석

Regions(아시아 몬순지역의 물 공동사회에 대한 시대적인 전망-관개의 다기능적 역할과 다양성-)”으로 일본농업토목학회 회장 겸 교토대학원 교수인 三野 徹 박사의 환영사와 신전의 국어대학교 학장 石井 米雄 박사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이어서 미국, 중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등에서 총 8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어대수 KCID 사무국장이 "Positive Function of Rice Cultivation on Natural Environment(우리나라 논 농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기능)"이라는 주제로 논문발표를 하였다.

제2세션 주제는 "Water Productivity in Agriculture and Positive/Negative Externalities of Irrigation(농업에서의 물 생산성과 관개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으로 타이완, 프랑스, 미국, 태국, 일본 등의 대표들이 총 7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제3세션 주제는 "Ecological Diversity Sustained by Rural Water and Conservation of Water Quality (농촌용수에 의한 생태계 다양성 유지와 수질보전)"로 일본 집락배수협회 특별고문 겸 ICID 부회장 谷山 重孝 박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총 5편

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필자도 "Irrigation Water Pollution and Water Quality Conservation in Korea(한국의 농업용수 수질과 수질보전방안)"의 주제로 논문발표를 하였다.

제 4 세션은 패널 토론으로 "Expansion of Scope of International Water Discussions based upon Diversity and Multi-functional Roles of Irrigation (관개의 다양성과 다기능적 역할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의 확대)"라는 주제로 일본, 한국, 스리랑카, 타이완,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미국 등 각 국가의 대표들에 의해 "관개와 환경의 상호작용", "국제적 물 토론에서 농업의 범위확대"라는 소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KCID 허유만 회장은 "한국에서 농업용수의 중요성과 농업용수 가치확대"라는 주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다. 기타 농업기술발전 국제회의 개최

3월 21일에는 교토 OMRON 연수센터에서 제2회 아시아 논 농업지대의 농공 기술자 육성에 관한 국제회의가 10개국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권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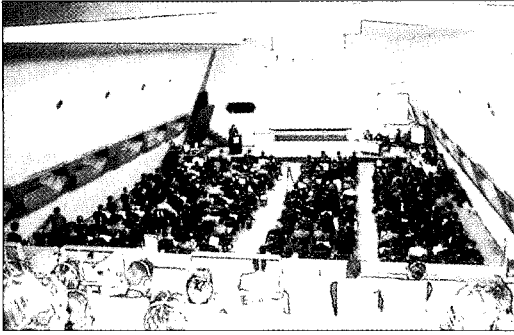


사진 2. 「농업, 식량과 물」 세션에 대한 개회식

국(서울대), 이근후(경상대), 김태철(충남대), 김진수(충북대), 윤춘경(건국대) 교수들이 참석하였다. 이근후 교수는 "한국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의 활동", 김태철 교수는 "한국 농공분야의 APEC 기술자 계획"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고, 김진수 교수와 윤춘경 교수는 우리 자연환경에 맞는 국제저널의 필요성을 제안하여 PWE 국제학술지의 산파역할을 담당하였다.

제1회 PAWEES (International Society of Paddy and Water Environment Engineering) 공로상 수여식에서 박성우 서울대 명예교수는 일본 사와다 전 교토대 총장, 마루야마(丸山利輔) 이시카와현립(石川縣立) 농업단기대학장(교토대 명예교수), 타부치(田淵俊雄) 전 도쿄대 교수, 타이완 간(甘俊二) 타이완대 명예교수 등과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진 3. 제1회 PAWEES 공로상 수상자인 박성우 서울대 명예교수

3. 맺는말

21C는 물의 세기로 물 문제는 어느 한 국가만이 아닌 세계적인 문제로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세계 수자원관리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토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제3회 세계 물 포럼」 개최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 생각된다. 특히, 농업용수 각료회의는 세계 수자원의 90% 이상이 이용되고 있으면서도 국제적인 물 토론회에서는 제외되었던, 농업용수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비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된 인식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회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도 농업용수에 대한 더 많은 국제적인 토론자리를 기대하며, 식량과 농업을 위한 물에 대한 각료회의 권고문과 물 각료회의 선언문 정신을 반영하여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보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